

# 전주시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 곳곳에 신규도서관 5곳 확충·3개소 복합문화공간 전환 완료·2개소 추진 중

전주시가 공공도서관을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특색있는 신규 도서관을 곳곳에 확충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 곳곳에 신규도서관을 5곳 확충하고, 3개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전환을 추진하는 등 도서관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한옥마을도서관과 동문헌책도서관 등 2개 특성화도서관이 문을 연 데 이어 2023년에는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가 개관했다.

또 지난 2024년 서신도서관·완산도서관·쪽구름도서관 등 3개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에는 에코도서관과 이중호수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하고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이중호수도서관이 새단장을 마쳤다.

이 가운데 책과 함께하는 여행자들의 쉼터인 한옥마을도서관과 현책방거리의 기억을 되살린 동문헌책도서관은 특성과 작은도서관으로, 전주가 가진 고유한 테마를 책문화공간과 엮어 방문객에게 독특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이중호수도서관 전경.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 창작 프로그램과 유아 및 초등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전주만의 선도적인 도서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총 1372개 기관(2만 1729명)에서 전주도서관의 도서관 시설과 다채로운 운영프로그램 등 선진 도서관 시스템 사례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기존 공공도서관이 변신한 복합문화공간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서신도서관은 전주지역 최초의 영어 특화도서관답게 △영어 독서 수준 진단 프로그램 도입 △원어민과 함께 영자신문 읽기 △영어 책놀이 등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영어 학습 접근성과 능력 격차 해소에 앞장

서고 있다. 완산도서관은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 입주작가 집필실과 강의실, 출판체험실 등이 조성됐으며, 입주작가 집필실에는 전문작가와 시민작가 22명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필실 운영 이후 입주작가 중 94명이 73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전시 등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쪽구름도서관은 세계문화 특화도서관으로서 △세계문화 특화 큐레이션 △주제별(세계 음식, 건축, 미술) 전문가 특강 △다문화 가정 1:1 독서 지도(멘토링) 등을 운영하며 이색적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개관한 이중호수도서관은 '책과 음악이 흐르는 길'을 테마로 한 10미터 길이의 음악 특화도서관으로, 호수 경관과 고품질 청음

인프라를 결합한 음악 특화 프로그램과 음악 주제 큐레이션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독서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 자리 잡은 에코도서관도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건지도서관과 호지도서관 등 2개 공공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건지도서관은 현재 토지매입과 증축·리모델링 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및 창의 학습 공간이 대폭 확대된다.

호지도서관도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체험 활동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정비가 이뤄지게 된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정책실장은 "각 도서관이 개성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고 신규 시설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복합문화공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전주도서관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을 다지는 등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함께라면 운영 고도화 추진

### 시, 고립·은둔 가구 발굴·사례 관리기능 강화

전주시가 2026년 새해 전주형 복지사업인 전주함께라면을 통해 더욱 촘촘한 고립가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고립·은둔 가구 발굴과 사례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주함께라면' 사업은 '누구나 놓고, 누구나 먹고 가는 공유공간'으로, 전주지역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복지위기에 놓인 가구를 촘촘하게 발굴·지원하는 전주형 복지사업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한 끼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고립·은둔 가구와 위기가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복지상담을 통해 복지신청 및 지원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함께라면'이 시작된 이후 일상 속 접근 가능한 공간을 매개



로 위기가구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되면서 시민 참여 확대와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발굴·연계 기능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함께라면'을 고립·은둔 가구 발굴부터 사례 관리, 지원 연계로 이어지는 현장 밀착형 복지사업으로 기능을 강화기로 했다.

특히 새해부터는 사회복지관 사례 관리 인력 및 통합사례관리 체계와의 연계로 주거·돌봄·정신건강·일상 회복 등 가구별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 판소리 완창 무대' 참가자 14일까지 모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의 고장인 전주시가 올해도 판소리의 명맥을 이을 판소리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통을 계승하고 완창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전주 판소리 완창 무대'와 함께할 역량 있는 소리꾼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전주 판소리 완창 무대'는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인 △적벽가 △홍봉가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를 각각 한 명의 소리꾼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완창하는 무대다.

시는 올해 완창 무대를 위해 한바탕을 4~5시간에 걸쳐 이끌어 갈 수 있

을 기량을 갖춘 5명의 소리꾼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소리꾼에게는 완창의 의미와 무대의 가치를 기리는 완창패가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전자우편(gkcms231@korea.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서 △최근 5년간의 활동 실적 △20분 이내의 판소리 음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소리꾼들과 함께하는 2026년 판소리 완창 무대'는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 국제 스포츠 교류 통해 우호 협력 강화

### 전주시·일본 가나자와시 유도협회, 전주시 합동훈련·문화 체험 등 진행

전주시가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와 활발한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 유도협회 선수단이 5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을 접견하고, 무라이마 다카시 가나자와 시장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타이 토모야키 가나자와시 유도협회장은 20년 이상 이어져 온 두 도시간 우호와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가나자와시 유도협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으며, 전주시 유도회와의 합동훈련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국제 스포



전주시가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와 활발한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츠 교류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전주 방문에는 타이 토모야키 협회장을 비롯한 가나자와시 유도협

회 회장단과 지도자, 선수 등 유도인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유도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양 도시 간 우호

증진과 청소년 교류 확대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 가나자와시 유도협회는 지난 3일 오후 입국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전주시 유도회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 국 유도 지도자 및 선수단 간 기술 교류와 간담회 등도 진행됐다.

방문단은 또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체육 교류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두 도시 사이에 이어져 온 유도(柔道)를 통한 교류가 어느새 19년을 맞이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교류와 더불어 상호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한일 두 도시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丙午年

# 金石為開

[금석위개] 강한의지와 정성으로 어떤일이든 해낼수있음을 비유하는 말

장수군